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966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휘부에 도착하시자 장병들이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장병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부대장병들은 설사 하늘땅이 뒤집히고 세상천지가 열백번변한다 해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한몸이 그대로 충이 되고 폭탄이 되어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원수님을 결사보위해갈 충정의 마음을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청껏 불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시관,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비, 혁명사적관,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련합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를 위해 바치신 헌신과 로고가 력력히 어려있는 귀중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부대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전지휘실에서 대련합부대장으로부터 방어작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였으며 군사연구실, 사격관, 교환근무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훈련실태와 전투동원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장병들이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피괴역적패당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원수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천겁, 만겁의 성새가 되고 방탄벽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멸적의 의지를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해가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대에서 군사연구실을 비롯한 훈련거점들을 훌륭히 구

려놓았을뿐만아니라 올해를 훈련의 해로 정해준 당의 의도에 맞게 훈련혁명 5대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에게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을 깊이 체득시키고 그것을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 적들의 변화되는 전쟁수행방식에 맞게 능숙히 활용할수 있도록 훈련을 짜고들고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당이 새롭게 밝혀준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에 립각하여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안목과 창조적능력, 배짱과 담력을 완벽하게 소유한 유능한 작전가, 싸움군지휘관으로 준비하고있으며 모든 군인들을 맡겨진 임

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는 일당백의 맹장들로 역세계 준비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틀어쥐고 부대장병들을 사상과 신념, 도덕의 강자로 역세계 키울데 대한 문제, 유사시 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일격에 격파분쇄할수 있도록 방어작전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퇴의 선으로 만들데 대한 문제, 불의에 공중강습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타격소멸할수 있는 대책들을 빠짐없이 세워놓을데 대한 문제, 새로 창안제작한 전투기술기재들을 더욱 완성할데 대한 문제 등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식당, 수영장, 목욕탕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군인회관에서 대련합부대에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초소들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으로써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2일 뜻깊은 식수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고 원아들과 함께 식수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만경대혁명학원에 도착하시자 나무심기를 진행하던 원아들과 교직원들은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원아들과 교직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무심기운동의 첫 봉화를 지퍼주신 뜻깊은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의 길이 전하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열

렬한 조국애, 향토애를 더욱 북돋아주는 의의깊은 날을 맞으며 어디에 가서 나무를 심을것인가를 생각하느라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이곳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봄철나무심기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조국산천을 더욱 살기 좋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계승자, 팔간들로 자라는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식수사업에서도 마땅히 앞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에게 나무는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심어야 사름를 보장할수 있다고, 식수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

다고 하나하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며 구덩이파기로부터 물주기, 흙다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나무심기를 직접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울창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만경대혁명학원의 전경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나무들이 짝 찼다고, 이제는 식수를 할 자리가 없겠다고, 원아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자육이 새겨진 곳들에 찾아가 나무를 심게 하라고, 현대적인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도 참관시키고 과학적인 식수방법도 터득시키라고,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자라는 원아들이 산림복구 전투에서 모범이 되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은 그 이름만 들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와 체온이 그대로 안겨오는 우리 수령님의 학원, 우리 장군님의 학원이라고, 나의 마음속에

는 언제나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있다고,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원의 원아들이 만경대의 아들답게 역세계 자라나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원아들은 걱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떨어지기 아쉬워 자꾸자꾸 따라서는 원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창밖으로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